

불상 만든 옛 장인의 마음읽기

국내 첫 정보보수교습원 고준영 원장



시간 앞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 무엇도 세월의 풍화를 견뎌내지 못한다. 몇 백 년이고 제자리를 지켜온 바위도 언젠가는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 나무로 만든 불상이야 더 말할 무엇하랴. 벌레 먹고 썩어 망가진 불상을 되살리는 일을 50년 넘게 해 온 이가 있다. 일본에서 1급 문화재 보존수리전문가로 불리는 제일동포 고준영(82·일본 이름 다카하시 도시오)씨다. 그가 올 3월 송광사 송광사에 우리 나라 최초로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정보보수교습원'을 열었다. 고국의 제자 6명과 함께 먹고 자며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장인의 마음이다.

"얼마 전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을 수리 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상은 시대에 따라 재료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표정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만든 사람의 불상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만 갖고는 좋은 불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도 견뎌내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인 셈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진짜 장인'이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때문에 그의 교육은 철저함과 엄격함을 추구한다.

그가 95년 일본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있는 온조지(圓城寺)에 전통기법교습소 98년 '존상수복원'으로 개칭을 열었을 때 전국에서 몰려든 교습생이 57명. 하지만 2년 반만에 35명으로, 다시 17명으로 줄더니 지금은 6명만이 남아 현장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해 백 년, 이 백 년 뒤까지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문화재를 맡긴다는 것은 훼손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송광사에 문을 연 정보보수교습원도 마찬가지다. 기초교육만 3년이다. 석고대생과 자기 손 그리기,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깎기를 1년씩 배우게 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현장실습을 통해 수리기술을 배우게 된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대생 수업이 계속된다. 오전엔 자기 손을 그리고, 오후엔 석고 대생을 한다. "손은 인체 가운데 질감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고씨는 손 그림을 보고 누가 봐도 무슨 동적인지 알 정도로 질감을 살려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교습원이 키

우리는 것은 최고의 장인이자 학자나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온조지에서 교습원생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그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장인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내 노력이 보상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준영 씨는 그곳에서 공업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만주에서 회사를 다니다 일제가 패망하던 해 일본에 건너갔다. 문화학원 미술과를 졸업하고 도쿄예술대에서 미술해부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일본 전국 점을 떠돌며 불상을 연구했다. 그는 60년부터 87년까지 일본의 보물기 모여있는 교토 국립박물관 미술인 국보수리소에서 문화재복원 전문가로 일했다. 73년부터 13년간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교토 33칸당 1,000불 가운데 505구의 관세음보살상을

고 늘 강조한다. 최고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중한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들고 다니는 강의 노트 속에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고찰, 불교상에 대한 분류 및 특징 등 기술적 주제뿐 아니라 윤리학, 인간성 등에 관한 글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다. 제자들을 평가할 때도 실력, 능력과 함께 책임감과 신뢰성, 적극성, 성실성 등 인간성과 제작태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70년째 일본인 다카하시 도시오로 귀화한 그의 손을 거쳐진 불상은 3,000구가 넘는다. 일본의 국보급 불상 가운데 그가 손을 안 댄 불상이 없을 정도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국보급 불상의 대부분은 옛날 백제인이, 백제인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일본 문화재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백제인이 만든 불상을 되살린 것입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관심은 어딜 가나 문화재에 쏠린다. 이끼류가 끼어 시커멓게 변해 버린 석탑과 부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는 얼마 전 전남 보성 대원사를 다녀오는 길에 본 것이라며 모서리가 깨져 나간 석불 그림 하나를 내밀었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문화정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몇 백년 뒤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만한 문화수준과 그것을 지켜낼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훼손한 대로 놔두면 문화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문화재를 남긴 민족이라면 자기 선조가 만든 문화재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장인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 하나로, 80년은 노구를 이끌고 모국에 정보보수교습원을 열었다.

글=권형진 기자 jny@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a.com

문화재 되살리기 50년
손거쳐 간 불상 3천구

"日 국보급 불상 백제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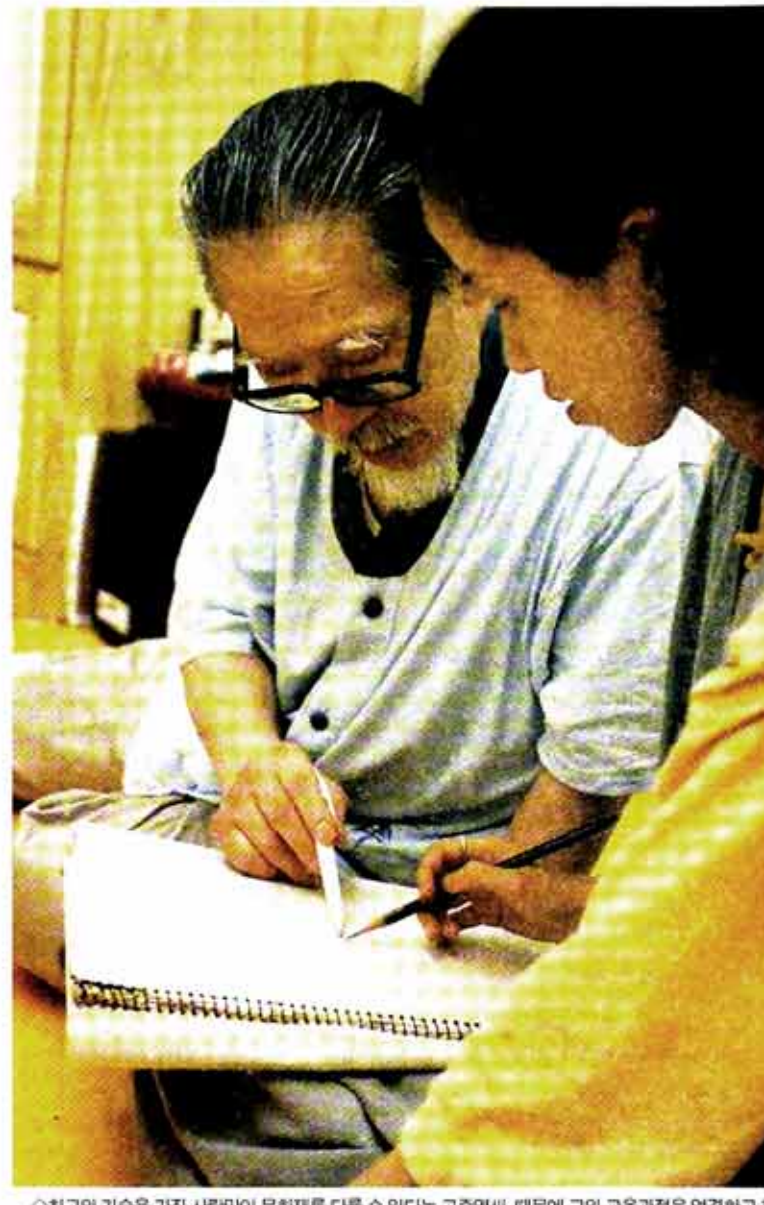
송광사서 제자 6명에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기술과 장인정신 전수

수리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직업은 특별하다. 수리할 불상을 하나하나 그려준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 일일이 표시해 둔다. 후학들을 위한 배려다. 교토 33칸당 관세음보살상을 수리하면서 남겼던 그림은 나중에 대한 그림집으로 출간됐다.

그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도 있다. 33칸당 1,000불 수리 당시 그는 신변증을 잃어버려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다. 그때 도쿄예술대 교수가 "그가 손을 놓으면 다른 기술자들이 수리에 없다"며 경찰에 보낸 탄원서를 그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도쿄예술대 내시다 마사하키 교수는 "수리뿐 아니라 조각, 미술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준영"이라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의 존재는 특별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가진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술에 앞서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문화재를 다룰 수 있다는 고준영씨. 때문에 그의 교육과정은 엄격하고 철저하다. 대생을 통해 누가 봐도 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정보보수 교습원은?

기본교육과정 3년
송광사 비용 지원

지난 3월 송광사에 문을 연 정보보수교습원은 우리 나라 최초로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부처님이나 나한상을 조성하는 재료로 꼭꼭 써야하고, 상당수 유물이 전해오는 데 비해 이를 보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습원의 기본 교육과정은 3년이다. 대생,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불상 깎기를 각각 1년씩 배운 후 현장실습을 통해 본격적인 보존수리 기술을 배우게 된다. 수강료는 없고 절에서 모든 비용을 대준다. 이론학습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복원기능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곳은 우리보다 문화재 보존 정책이 앞선 일본에서도 드물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준영씨는 "문화재 보존수리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절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

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교습원생은 6명.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들은 고씨에게 직접 불교공리와 불교사, 불상의 특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기 손모양을 그린다.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는 석고 대생이다.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1년이 지나도 질감을 표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교습원은 송광사가 지난 해 제일동포 문화재 보존수리전문가 고준영씨를 초빙해 실시한 국보 제42호 보조국사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비계기로 설립됐다. 수리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드나들던 고씨가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후진양성에 바치고 싶다"고 밝혔고 이에 감격한 주지 현봉 스님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는 내년 3월까지의 실습장소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청 등에 교습원을 정식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절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모집기간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인이나 원한다면 교습원생을 더 받아들이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영씨가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을 수리하고 있는 모습. 천년전 불감을 만든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장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기술 못지않게 강조하는 건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 교육시간이 지나면 그에게서 친할아버지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교습원생들은 말한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수박즙



7월 삼복의 뜨거운 날이었다. 명성황후가 첫아이의 명복을 빌고, 둘째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금강산과 지리산의 스님들께 기도를 붙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계룡산 서쪽의 신원사에 직접 불공을 올린 행차한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왕비의 모습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경오년 11월 태어난 원자는 불행히도 쇠항(頤紅: 배변불능) 증상을 가진 불구

자로 태어나 사흘만에 죽고 말았다. 첫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지 않자 황후는 불면증과 손발이 통통 붓는 데다 가슴까지 답답하고 제대로 눕지도 자지도 못하는 터여서, 왕실의 금기마저 깨고 계룡산까지 몸소 불공을 올리러 나선 것이다.

길가의 수박밭 두둑 위로 파랗게 반들거리는 수박들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의 동그스름한 배를 연상케 하는 정경

갈증 없애주고 피로 회복

이었다. 그 순간, 명성황후는 첫아이에 대한 복받치는 그리움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어의는 황급하게 신원사로 명성황후를 모시고 비상약을 처방했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 노인이 수박즙을 올려보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읊소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의가 수박즙을 명성황후의 입안에 흘려보내자, 잠시 후 황후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맥도 살아났다. 그 후 명성황후와 고종은 여름이면 잠들기 전에 수박즙을, 겨울이면 동치미국물을 먹는 습관을

가게 되었다.

수박은 4,0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13세기 경 홍다구(1224-1291)라는 사람이 개성에 심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94.5%가 수분인 수박에는 아미노산과 포도당,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또, 이노시톨이 뛰어나 신경질환에 좋다. 그 외에도 주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없애 주며, 마음 속에 쌓인 화병에 좋다.

■ 약식연구가. <산사에 기원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수박, 황설탕 (꿀) 약간

요리법 잘 익은 수박 속을 대나무 숟가락으로 긁어낸 후, 체에 걸러 즙만을 그릇에 담아 낸다. 맛을 내려면 황설탕 약간을 넣어도 좋다. 수박의 파란 껍질즙을 도려내어 잘 말린 다음, 생수를 넣고 우려내면 수박차가 된다.

하얀 속껍질 부분을 생채로 무쳐서 먹어도 별미.

